

새해 새 설계

이 의 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 지원 늘려 창업 촉진”

“새 정부의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경영정책에 맞춰 광주·전남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가진 강점을 전국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의준(54)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은 지난 8일 “광주와 전남은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공단을 유지할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광주의 첨단 기술 및 생산분야의 제조서비스업과 전남도의 농·공·상 융합의 6차산업을 육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 경제전망도 밝지 않지만 새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중소기업에 중심을 둔 경영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며 “정책의 중심에 서서 광주전남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를 위해 올해 지역 발전을 위해 3가지 핵심정책을 내놓았다. 고용과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창업을 촉진시켜 지역의 우수하고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지역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또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정책자금과 늘리고 연구개발을 돕는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활력을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제품 공공구매

불공정 하도급 근절

농공상中企 130개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해 전국 300곳의 농공상육성형중소기업 중 광주·전남이 112곳이었지만 올해는 130곳으로 확대, 지정되도록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분주히 활동 중”이라며 “지역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구매확대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근절, 수출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중소기업 지원책과 기업인에 대한 주문도 함께 했다.

이 청장은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체계 개선과 창업 초기 기업 및 혁신형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강화 등 여러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 공약이 실천되려면 담당부처의 기능강화는 물론,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인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당선인이 불공정·불균형·불합리 등 이른바 중소기업의 ‘3불’을 해소하겠다고 강하게 밝힌 만큼 기업인들도 마케팅 강화와 함께 지역전략을 새로 마련하는 등 ‘손바닥을 마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인천 출신으로 흥익대 기계공학과, 영국 버밍엄대학 경영학과와 연세대학교원 기술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과장·운영지원과장·소상공인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카드상품 잘 고르면 무이자 할부 쪽~

삼성 등 자사 고객 대상 행사

국내 카드사들이 카드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를 내달부터 중단한다.

일부 대형할인점에 무이자할부 행사를 지속해온 삼성카드도 동참하기로 했다.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은 대형 카드와 창업 초기 기업 및 혁신형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강화 등 여러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 공약이 실천되려면 담당부처의 기능강화는 물론,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인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 모든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보험의 고객 유치용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됐다. 당분간 일부 고객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고객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근 내놓은 자사 고객 대상 무이자할부 행사를 이

용하면 된다.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무이자할부가 부가 혜택으로 명기된 카드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 전가맹점에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삼성카드 ‘삼성카드4’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에 제공된 무이자 할부 행사는 일반가맹점이나 재래시장의 수수료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감독 당국은 카드 시장 합리화 과정에서 무이자 할부 행사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삼성카드도 동참하게 됐다.

‘카드업계 혁신 전도사’로 불리는

최 사장은 올해 업계 2위를 굳히고자 지난해 150만장을 발급해 최고 상품으로 등극한 숫자카드 시리즈를 올해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삼성카드에는 올해 숫자카드를 기반으로 고객 동향을 적기에 파악해 상품 혜택을 반영함으로써 고객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4’에 정유사 제휴를 더해 ‘SK에너지 삼성카드4’를 출시해 혜택을 극대화했듯이 숫자카드에 제휴사를 더하는 전략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光銀 순천신대지점 개점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8일 오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자리잡게 된 순천신대지점에서 송기진 광주은행장 및 조충훈 순천시장, 김선동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신대지점 개점식 행사를 가졌다.

광주은행의 154번째 영업점으로 탄생한 광주은행 순천신대지점은 광양만경제자유구역권 최고의 배후중심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까지 3만명의 입주가 예상되는 순천신대지구에 위치했다. 향후 이 지역은 금융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이며 이번 순천신대지점 개점으

로 지역 상공인 및 주민들의 금융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후원 은행으로서 세계화를 지향한 국제배후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순천신대지구에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점 했다”며 “전남 동부지역의 금융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새 얼굴

“유관기관과 협력...연구역량 확충”

나상욱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심층 조사연구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역경제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10일 부임한 나상욱(54)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지자체, 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확대해 지역경제 현안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등 자체 연구역량 확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 신임 본부장은 광주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일본 나고야대학교에서 경영



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후 정책기획국, 금융시장국, 금융안정분석국, 통화정책국, 금융통화위원실과 런던사무소 등도 거쳤다.

금융시장부 등 주요 정책부서에서 팀장을 역임했으며, 금융통화위원실과 런던사무소 등도 거쳤다. 가족으로는 부인 최현애씨와 1남 1녀가 있다.

/이은미기자 emlee@

광주·전남 취업자 늘었다

지난달 2만명 증가...실업자는 3000명 줄어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지역의 취업자는 늘고 실업률은 감소했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2월 및 연간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 지역 취업자수는 69만3000명으로 전 달보다 2만명(2.9%)이 늘었다.

중상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비임금근로자가 1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8.3%) 증가했다. 자영업자

수는 15만3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2000명(8.5%)이 증가했다. 이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명(9.3%)가 늘었다.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수는 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17.6%)이나 줄면서 실업률도 1.8%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2만7000명으로

로 전년동월대비 2만4000명(4.7%)가 늘었다. 활동상태별로는 가사(17만3000명), 통학(16만9000명), 육아(4만8000명) 순으로 많았다.

전남은 지난해 취업자수가 9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만9000명(4.5%)이 늘었다. 서비스·판매직(1만8000명), 관리자·전문가(1만2000명) 늘어난 반면 농업·농림업숙련종사자(-7000명)는 감소했다.

실업자수는 1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3000명(-17.4%)이나 감소했고 실업률도 1.5%로 0.4%포인트 하락했다.

/이은미기자 emlee@

